

발간사(發刊辭)

우리 제주파(濟州派)의 족보(族譜) 편집(編輯) 유래(由來)를 살펴보면 융희원년(隆熙元年)(一九〇九年)에 입도시조묘소비석(入島始祖墓所碑石)을 개수(改堅)하고 수묘손(守墓孫)을 선정(選定)하여 묘제봉향(墓祭奉享)을 시작(始作)할 때부터 발의(發議)된 것으로 믿어진다.

때는 왜국(倭國)의 강압(強壓)에 눌려 굴욕적(屈辱的)인 합병(合併)의 전후(前後)인지라 국내정세(國內情勢)가 험악(險惡)하였고, 랴도민(落島民)의 생활고(生活苦)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 환경(環境)이었음에도 불구하고(不拘)하고 족보(族譜)를 편집(編輯)하는 것만이 선조(先祖)의 위열(偉烈)과 홍업(鴻業)을 경모(敬慕)하며 친족간(親族間)의 도목(敦睦)을 도모(圖謀)하는 길이라 하는 굳은 의지(意志)로 해륙수천리한양(海陸數千里漢陽)길을 멀다 않고 답보래왕(踏步來往)을 거듭하는 동안 풍餐露宿(風餐露宿)과 객창(客窓)에서 빈객천대(貧客賤待)를 받으면서도 전인불발(堅忍不拔)하시어 상세계(上世系)의 세덕(世德)을 급기야 화립(及其也確立)하셨다.

입도시조이후(入島始祖以後) 五百여년간(余年間)의 현조님(顯祖任)들의 사적(事蹟)과 체계(體系) 및 파별(派別) 항렬(行列)를 밝히는데도 오늘 우리들이 상상(想像)할 수 없는 애로(隘路)와 고충(苦衷)이 허다(許多)하였을 것이다. 그때 본도(本道)의 교통(交通) 통신(通信) 사정(事情)을 추상(追想)할 때 방방곡곡(坊坊谷谷)에 산재(散在)한 종친(宗親)에게 연락(連絡)이란 용이(容易)한 것이 아니라 서면전달(書面傳達) 후(或)은 종파별(宗派別) 요원(要員)과 편집유사(編輯有司)들이 순회(巡迴)를 하면서 자료수집(資料蒐集)에 진심갈력(盡心竭力)

하였든 결과(結果)로 신해보 편집(辛亥譜編輯)을 완성(完成)하였음은 오로지 선조(先祖)의 열을 이어 받은 위덕(偉德)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신해보창간후(辛亥譜創刊後) 四十여년(余年)이 경과(經過)한 一九五三年 五月 족보수보위원회(族譜修譜委員會)를 조직(組織)하여 시대(時代)에 부응(副應)토록 수보(修譜)에 착수(着手)하였으나 본도(本道) 四三사건(事件)의 참상(慘狀)과 六二五동란(動亂)의 직후(直後)이라 민정(民情)이 미처 회복(回復)치 못하므로 하여 자금사정상 부득이명하전(資金事情上不得已名下錢)을 받아야만 되었었고 도외(道外)에 산재(散在)한 종친(宗親)들에게는 열낙(連絡)이 여의(如意)치 못한 관계(關係)로 자료수집(資料蒐集)에 애로(隘路)가 막심(莫甚)하여본의(本意)아닌 루락(漏落)된 종친(宗親)들이 많이 있던 것도 사실(事實)이다

그러나 임원제위(任員諸位)가 어려운 난관(難關)과 애로(隘路)를 극복(克服)하면서 신해보(辛亥譜) 二배이상(倍以上)의 을미보(乙未譜)를 편집완성(編輯完成)하였음은 오직 선조님(先祖)의 유훈(遺訓)임을 자각(自覺)하고 전종친(全宗親)은 이 정신(精神)을 후손(後孫)들에게 전승(傳承)되도록 각별(格別)한 노력(努力)을 경주(傾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미보(乙未譜)를 편집(編輯)한지도 어언간(於焉間) 二十여성상(余星霜)이 되니 그간(其間) 많은 자손(子孫)들이 번영(繁榮)하였고 을미보(乙未譜)에 빠진 후손(後孫)들도 많을뿐 아니라 일면(一面)시대(時代)의 조류(潮流)에만 편승(便乘)하여 숭조애족(崇祖愛族)의 정의(正義)를 망각(忘却)하는 후예(後裔)들도 허다(許多)함을 부인(否認)할수 없는 사실(事實)임을 비추어 볼 때 수보(修譜)의 필요성(必要性)을 절실(切實)히 느끼지는 것이다 예(例)컨대 우리 종문(宗

門)의 과업(課業)인 입도시조묘소경내성역화(入島始祖墓所境內聖域化) 및 장학회창설사업(獎學會創設事業)에 있어서도 해가 거듭함에 따라 열의(熱意)가 저조(低調)되고 있으며 또 오불관언(吾不關焉)하여 대안(對岸)의 관화시(觀火視)하는 종족(宗族)이 있는은 실(實)로 유감지사(遺憾之事)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차제(此際)에 이 세보(世譜)를 편집(編輯)하여 선조(先祖)의 위업(偉業)을 탐구인식(探究認識)토록 하고 송조사상(崇祖思想)을 고취양양(鼓吹昂揚)시켜 각기분파조(各其分派祖)의 소목(昭穆)을 일깨우므로써 종친간(宗親間)의 돈목(敦睦)이 잘 이루어질 것이며 종친회과업(宗親會課業)도 순조(順調)롭게 수행(遂行)될 것으로 믿어 지는 바이다

그리하여 一九七六年 三月 정기총회(定期總會)에 세보편찬안(世譜編纂案)을부의(附議)하였든바 만장일치(滿場一致)로 가결(可決)되어 곧 세보편찬위원회(世譜編纂委員會)를 조직(組織)하였으며 시대(時代)에 알맞도록 편찬(編纂)및 자료기재요령(資料記載要領)을 제정(制定)상 세계편(上世系編)은 경주김씨대동보(慶州金氏大同譜)와 익화김씨대동보(益和金氏大同譜)에서 발취보완(拔粹補完)하고 중세계(中世系)는 신해보(辛亥譜)와 을미보(乙未譜)에 의거(依據)입도시조이후현조(入道始祖以後顯祖)의 사적(事蹟)과 효열(孝烈)및 종중명예사항등(宗中名譽事項等)을 발굴수록(發掘收錄)하며 각자(各自)가 분파조(分派祖)까지의 기사자료(記事資料)를 신고(申告)토록 하는 일면(一面)과 거폐단(過去弊端)이 되든 명하전(名下錢)은 받지 아니하기로 하여 편집(編輯)에 착수(着手)는 하였으나 성실(誠實)치 못한 자료신고(資料申告)로 본부임원(本部任員)및 시읍면지부임원진(市邑面支部任員陣)의 고충(苦衷)이 이루어 말할 수 없음을

정도(程度)였다 자기선조(自己先兆)의 서열(序列)을 확립(確立)하여 후세(後世)에 전승(傳承)시키겠다는 정신(精神)을 망각(忘却)하고 마치 세보편찬위원(世譜編纂委員)의 본무(本務)를 협찬(協贊)한다는 그릇된 사고방식(思考方式)을 가진 종친(宗親)이 허다(許多)하였으나 각임원진(各任員陣)의 꾸준한 노력(努力)으로 이를 극복(克服)하고 편찬(編纂)에 전념(專念)하여 명실공(名實共)히 세보(世譜)의 사명(使命)을 다할 수 있는 보책(譜冊)이 완성(完成)되었음은 여러 종친(宗親)과 더불어 기뻐하며 임원진(任員陣)의 열의(熱意)와 노고(勞苦)에 대(對)하여 경의(敬意)와 치사(致辭)를 드리는 바이다

이제 이보책(譜冊)은 종문(宗門)의 귀감(龜鑑)이며 후예(後裔)들의 교양서(教養書)가 될것 이므로 길이 전승(傳承)하여 우리 경주김씨(慶州金氏)의 전통(傳統)과 족중단합(族中團合)의 특수성(特殊性)을 되살리고 선조님(先祖任)의 유훈(遺訓)을 영세(永世)에 계승(繼承)시키기를 바라는 바이다

西紀一九七八年 月 日

慶州金氏濟州道宗親會 會長 斗

泣

서 문(序文)

우리가 물이라면 새삼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라는 우리나라 개천절(開天節) 노래의 첫 구절(句節)이 시사(示唆)하듯 만물(萬物)의 생성발전(生成發展)의 근원(根源)을 생각(生覺)할 때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를 있게 한 선조대계(先祖代系)를 새삼 도리켜 본다

대보공(大輔公)의 후예(後裔)이며 중시조(中始祖)인 경순왕(敬順王)을 거쳐 입도조(入島祖)와 그위 익화군(益和君)까지의 상대계(上代系)를 추앙(追仰)해 보는 것도 송조지념(崇祖之念)의 당연(當然)한 발동(發動)이라 할수 있다 이와같이 후세동족(後世同族)이 조상(祖上)의 열역(閱歷)과 가계(家系)의 혈통(血統)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알아보고 그의 유덕(遺德)을 기리게 하는 씨족사(氏族史)가 바로 세보(世譜)인 것이다

7

족보(族譜)는 일찌기 중국(中國)으로부터 건너들어와 고려중엽(高麗中葉)이후에 본격적(本格的)으로 편찬(編纂)되어 나왔다 그러나 당시에는 족보편찬(族譜編纂) 목적(目的)이 과거응시(科擧應試)나 군역면제등(軍役免除等) 주(主)로 반상구별(班常區別)및 출세영달(出世榮達)의 수단(手段)으로 악용(惡用) 또는 오도(誤導)된 예(例)가 많았음에 비추어 족보(族譜)의 순수(純粹)한 목적(目的)과 깊은 의의(意義)에 유의(留意)할 필요(必要)가 있다 족보(族譜)는 개인(個人)의 내력(來歷)과 조상(祖上)의 열역(閱歷)을 적음으로서 그 세계(世系)를 확연(確然)히 할수 있게 하고 동족간(同族間)의 친목(親睦)과 우의(友誼)를 돈독(敦篤)히 하며 루대(累代)를 거듭함에 따라 종파(宗派)가 갈리고 일가(一家)가 서로 모르게 될때 그가 계(家系)를 쉽게 찾는 길은 오직 이 족보(族譜)뿐이다 더구나 극단적(極端的)인 개인주의(個

人主義)와 핵가족(核家族)경향이 팽배(澎湃)해가고 있는 현대사회(現代社會)의 조류(潮流)속에서는 개인(個人)과 그리고 씨족(氏族)과 사회(社會)를 호연(互連)케 하고 융합(融合)하며 나아가서는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에서 개인(個人)을 조국(祖國)속의 나로 승화(昇華)시키 는 모개체(媒介體)로 족보(族譜)는 절대 필요(必要)한 것이라 하겠다

이런 견지(見地)에서 증조(崇祖) 친목(親睦) 육예(育裔)를 중헌(宗憲)으로 하는 경주김씨 제주도종친회(慶州金氏濟州道宗親會)에서는 西紀一九一一年(年) 신해(辛亥)에 제(第)一次로 경주김씨세보(慶州金氏世譜)를 편집(編輯)하고 一九五五年(年) 을미(乙未)에 개정판(改正版)을 낸바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當時)에는 사적문헌(史績文獻)의 참고(參考)와 조사활동(調査活動)의 미흡(未洽)으로 인(因)하여 오인(誤認)과 누락(漏落)된 사항(事項)이 많이 있고 또한 경제적여건(經濟的與件)에 따라 수단(收單)에 미참(未參)한 종친(宗親)도 많은 것으로 생각(生覺)된다 동족후손(同族後孫)이라면 남녀(男女)와 빈부(貧富)의 차(差)를 막론(莫論)하고 전원수록(金員收錄)되어야 하고 시대(時代)의 변천(變遷)에 따라 누구나 친근(親近)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표기방법(表記方法)과 체제(體制)등이 개편(改編)되어야 할 것이다 금반본회(今般本會)가 현재(現在)의 경주김씨세보(慶州金氏世譜)를 경주김씨의화군제주과세보(慶州金氏益和君濟州派世譜)로 개칭(改稱)편집(編纂)하게 된것도 바로 이러한 족보(族譜)의 현대화요청(現代化要請)에부응(副應)하기 위해서이다 제주도종친회(濟州道宗親會)에서는 이와 같은 의욕적(意慾的)이고 방대(龐大)한 사업(事業)을 완수(完遂)하기 爲해서 七六(年)年(三)월(月)에 경주김씨의화군제주과세보편찬위원회(慶州金氏益和君濟州派世譜編纂委員會)를구

성(構成)하고 도내(道內)는 물론(勿論) 내륙지방(內陸地方)과 해외(海外)에까지 자료수집(資料蒐集) 및 조사활동(調查活動)을 전개(展開)하여 어느 정도(程度) 사실(事實)과 고증(考證)에 입각(立脚)한 명실상부(名實相符)의 세보(世譜)를 편찬하는데 심혈(心血)을 경주(傾注)하였으나 힘에겨운 여러가지 제약(制約)된 조건(條件)과 능력(能力)의 한계등(限界等)으로 종종제현(宗中諸賢)의 기대(期待)에 미흡(未洽)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오니 이점 널리 양해(諒解)하시기 바라오며 끝으로 본보(本譜)를 펴는데 공헌(貢獻)하신 종친회임원(宗親會任員)들과 직접간접(直接間接)으로 협조(協助)해 주신 종친(宗親)여러분께 경의(敬意)와 감사(感謝)를 드립니다

西紀一九七八年 月

慶州金氏益和君濟州派世譜編纂委員會

辛亥譜序(其一)

譜者所以承先紹後而勸敦睦之義也。人之有祖若孫，如水之有源，木之有根源，深則其流必遠，根固則其枝必繁。此古今之常理也。惟我金氏，始於雞林而貫以慶州者何也？降至于羅季敬順王天步方艱，知其不能自存，遂遜于高麗。麗朝以禮迎之，嬪以長女，樂浪公主除新羅爲慶州府以其第四子平章事諱殷說封大安君。此吾金之所以爲貫而世享爵祿者也。至十世孫諱時興以平章事平趙匡妙清亂，錄勲封上洛君。又討平趙位寵之，叛上以嘉尙重封金寧君，則爲其後裔者隨其封爵以金寧爲貫。金寧變爲金海，則又隨其變而乃以貫之。世遠派分，後屬漸疎，相視如塗人，與駕洛之先金海混稱無別。噫，駕洛新羅一姓字二金海，不得不校正憲宗丙午，長興宗人麟抗氏等以慶州貫仍舊意鳴金于輩路之下，蒙允叛下輪示于八域。載籍修譜，上自朝家，下至郡邑，始知慶州之與駕洛確然有異矣。然而此土吾金，即我朝開國功臣益和君諱仁贊之三子，訓練都監諱儉龍以監牧事始入濟州子孫仍居。世有享錄，猷誠者赫然迭興，茲豈非祖先之餘蔭裕後者耶？嗚呼！一人之孫分爲千萬人，千萬人之身本乎一人，則族雖遠而誼不可疎。此吾譜之所以作也。苟無是譜，蕃衍後裔安知其某祖某諱爲幾代祖也？某派某族爲幾代孫哉？族之遠近親疎雖有分別，其在敦睦之義則一致。以余之淺量，如是妄舉無所逃罪，然懼前烈之或泯，慨後屬之漸遠，參考譜派世系合成一譜而叙其編略，以俟後來修譜者之補缺。正誤云爾。

歲辛亥陽月上澣不肖後孫鄉解國樞謹書

(其二)

夫尊祖敦族莫修譜若也。修譜誠好事而事關重大，必待其人而後作。然則前世之未遑不無其人

不無其時而所謂命者數者不得用事於其間而然歟 若吾先祖崇政公之偉烈 資憲公之英邁 察訪公之純行 間世不 匱實南服之望 而其於修譜 未遑何也 竊以爲當時授受心訣 以孝悌慈三字 爲大擔負 惟重百世一室之誼 而不慮後屬之漸疎漸遠也 夫孟子有言君子之澤 五世而斬 小人之澤 五世而斬 澤斬則服窮 則路人寧不寒心 是以譜法起使人收宗族厚風俗 疎者使之親 遠者使之近 雖百世不遠 不疎良有以也 試以 今日言之 吾金氏修譜之前 不幾於路人 相視者希而究其所自出則 一人身之分也 惟我十七代祖訓練都監公之雲孫 其數不止數千 然至有舉其先 而不能對者其恥可知也 有是孫而不知有 是祖可乎 故粵在 己酉 宗人國樞熙殷永文 諸氏 謀修是譜 而物議欲完旋岐至今春始克合單 於是謀諸劖劂而始役 俾弘翊參相之顧 弘翊素昧譜學 萬不可堪當 而惟知修譜之爲美 不獲終辭 及其告成 而粧橫 編成六冊一部 弘翊再拜擎閱 訖 顧謂僉宗氏 曰庶無興感之心否 前乎今日則先祖盛烈 或幾乎泯 後乎今日 則益以光耀 前乎今日 則諸族幾乎路人 後乎今日 則益以親近 茲蓋伊誰之力 咸曰二三氏不憚 勤勞之致也 弘翊曰否是乃先祖之靈著也 二三氏俱先祖之孫則先祖冥靈 使此後孫爲成此事 云而然後 言足聽聞 而庶不墜尊祖敦族之義矣 願僉宗氏 勉旃 勉旃 不肖後孫 主事 弘翊謹書

(其三)

夫譜有大同小同 小同者 同乎 一門大同者 同乎 一國也 然則是譜也 豈非三郡之大同乎 噫 吾金之出 始自雞林 歷羅麗 八我朝 王業之統 爵祿之享 不待譜而班班可稽矣 然慶州之貫則自敬順王第四子 平章事殷說公 始焉其後子孫 蔓延一國世遠族疎 同井者無幾 莫知鼻祖之爲幾世 耳孫之爲

某派若使他人聞知豈不可恥哉宗人國樞弘翊熙殷諸氏有志於修譜者也克明敦睦之義遂起譜族之論者殆至數年終未就緒矣何幸今春開役發章三郡收單諸于爰命永文參相其役於是募工綾梓至陽月而克竣成編自上系至于中葉自中葉至于我世代之遠近行列之次序瞭然在目一開卷可徵而承先紹後之義不外乎此此吾譜之所以作也自茲以往有志於斯譜者嗣而輯之是譜也安知後日之不爲普及于一國天下而止於三郡而已也哉永文以文拙不能盡記慨舉首末以續貂之爾

不肖後孫永文謹書

(其四)

人異於物者以其知本也蓋自上古有人有姓欲不忘其本之義也既人而得姓則不可無譜無懷氏之十五世相承周武之十六世丞嗣無以譜不可考是以國之史家之譜所以作也然則譜之作也豈不重且大歟自始祖而己身己身而千百代孫後由是以知某氏某貫由是以知某祖孫某派系猶水之千派同源木之萬枝同根世遠族離易至路人若不明其譜必將滅倫忘本乃己則不遠於羽毛之類噫惟我鼻祖誕降于新羅金城即慶州也至七代孫味鄒繼助賁王昔氏而立歷三十八王遂遜國于高麗歷年四百二十有餘年矣昭載於新羅歷史而敬順王第四子仍爲大安君至七代孫爲金寧君至九代孫開國功臣爲益和君子孫其麗不億蔓延一國基布八域益和君第三子訓練都監公膺命落鄉雲仍振々忠功綿綿終乎吾先祖王於新羅君於高麗功於本朝可謂三代華族而大譜舊譜非不周祥亦無不差爽恐若文獻之不足惟恨有司之不明是所盡宵茹嘆者而惟余家庭慨然有志於此然而緣於宗議之不一積年未就而余繼以廣探古蹟蒐集各派家乘先自修正派系宗人國樞氏從以修正其

派系各派有志僉彥觀感而作恍然而覺追遠孝悌之心油然而發于中咸曰合譜續修可也仍令國樞氏合偏刊正辨昭穆而秩秩有序從行列而班班無遺百世以上以下實行顯蹟年記丘陵開卷瞭然尊慕自先之道敦愛宗親之義於斯盡矣豈不美且休歟親吾親以及人之所親倫綱之舒風教之施亦不外乎次矣是故帝堯協萬時雍之化肇放親九族而已則其於重大不敢贅說然而既以注意之深則不能泯然祖己略付管窺以俟後之君子追以闡明嗣修百世不墜則可爲敬慕敦睦之一助之爾

不肖後孫直員熙殷謹書

辛亥舊譜跋(其一)

歲辛亥々月之朔吾金氏修譜之役告竣僉宗氏少長咸集莫不一辭言以稱贊曰美哉吾譜之成也斯乃宗人國樞弘翊永文諸氏殫勞之力也鎮洙再拜曰誠哉是言二三氏儘宗中之彥其於尊祖敦族之義倦々匪懈詢謀者三年始役者一年入梓者三月而乃成始艱終易初無疇襄岐論之影有若先祖冥靈默佑於五百載之後焉今吾譜譜吾族而其數數千俱是訓練都監公之後則無乃累仁於前而然歟誠可感而可悅惟願僉宗氏想先祖卜基奠居之猷敦百世一室之誼則雖千里散處而便同同居況同一譜則遠者愈近疎者愈親其美可勝言哉鎮洙所願不外乎此外此則弊倫或幾乎息矣有今日有其人有是譜上以承祖先之系下以聯雲孫之列一開卷孰不觀感乎鎮洙以爲今日之修譜殆扶弊倫之一端歟可乎否乎願俟明譜學者而質焉

辛亥陽月吉日不肖後孫主事鎮洙謹跋

(其二)

金氏分貫四百有餘 而其一慶州也 慶州金氏之爲巨族我東之所共誦 非特按史觀譜而後知也 今吾譜通居濟一派而修其麗數千以計 呼亦盛矣 今日修譜之役 殆前世之所末遑則可謂好事人皆可欲而鮮能之其故何也 孝悌之道未克盡也 蘇氏有言 觀吾譜則孝悌之心油然而生 信乎然矣 吾宗國樞弘翊熙殷永文諸氏 慨然興起一發章而不謀同辭 收單畢至始役於客夏 扨六而至陽月 剗剗之功告訖 一開卷源流昭穆班班可考 性休雖不肖 無似而有時開閱 未嘗不追感於前世盛然也 若夫前世盛烈其於前後辨文詳之性休何敢庸贅 然願有一言以續尾焉 譜以敦講睦爲本 吾金氏修譜之前 親非不敦睦 非不講矣 而其於疎者遠者未必一一親之近之 今日之後 則疎者可親 遠者可近 問其世則知行列之序 問其派則知宗支之分 而親睦之義在中矣 向所謂孝悌之心 油然而生者 不其然乎 故性休以爲好事未有甚於修譜 修譜亦必待人而作 則今日相是役者 其能盡孝悌之道者歟

不肖後孫性洙謹跋

舊譜序

吾先祖文僖公有言 曰唐堯協萬時雍之治 惟在親九族以和 之是知程子曰 管攝人心 收宗族厚風俗 使人不忘本 須是明譜系 然則譜系明不止爲尊祖敬宗之義 其有關於世教亦大矣 蓋自古得姓受本者或以邑爲氏 以居爲氏 以字爲氏 以名爲氏 契於鳥卵 稷於人跡 由百世之下知百世之上者 非譜莫可也 是故周小史定系世辨 昭穆春秋亦言 昨之士命之氏 其後諸家譜由是作也 噫 譜者普也 普記之謂譜也 人之異於物者 以知其本也 知有其身 不知其生 可乎 同出於一人而族離居遠 則至如路人矣 此非

其譜則何以得知溯源而親々乎大抵記族之經書若如經傳有異然見則譜知有一氣分之皆出孝悌油然而之心秉彝立綱之道不待教而自成矣然則修傳之訓自且於其中也由是人人各厚其族以及人之所厚者則熏爲太和風俗豈不美哉嗚呼欲知其尊卑之序而盡其敬者禮之本也盡其和者樂之源也人行禮樂之道則世道其有不昇者乎是以譜牒之作雖出於一家斯固一國之所當獎也古人言宗法廢而天下無世家譜系失而天下無至親於乎觀吾之譜則辨源派知根枝子而孫繼且承大宗小宗舊譜新譜便可詳矣自此敦睦之風百世不衰則亦莫非先祖積德行仁之驗耶詩云無忝爾祖聿修厥德維彼諸君子盖勉旆哉

양근김씨족보서(楊根金氏族譜序)

歲甲子季春下澣後裔孫彥勗謹序

김씨는 신라 경순왕의 후예로 그 수효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데 양근이란 본관을 쓰고 있는 것도 그중의 한파이다

그 근원이 길고 멀어 조상을 같이 하면서도 종족이 다르고 그 파가 나뉘어져 있으므로 자연 족보도 각기 달리하는 것은 사세에 부득이한 일이다

국초에 의화군 충민공이 왕가를 도와 양근군을 봉했으니 이것이 우리 파의 시초이다. 이로 부터四大 내려가 의성군에 이르러서는 벼슬이 희현하고 一문의 융성함이 한껏 성하였으나 중엽에서 부터는 가문이 침체하고 자손이 미약해서 사람이 나지 못하였다.

그러던중 병화에 시달리게 되어 보첩을 분실하는 일이 많고 정향에 흠어져서 종족을 알지 못하고 남보듯하게 되니 그 종파의 계통과 파별이 분별을 어찌 알수 있으랴!

아! 한몸이 있음으로써 형제가 있고 형제가 갈라져서 일가친척이 되거늘 서로 남같이 봄으로서 경사와 근심을 모르는체하니 이로써 소씨에 족보가 생겼고 그 족보를 보는 이는 모두가 효제의 마음을 얻누를수 없었다.

이제 우리 김씨는 지금껏 족보가 없으니 효제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생길수 있었을까? 내가 이것을 걱정하노니 정부자의 종족을 모아 보계를 밝히려는 말씀을 잠시도 잊지못한채 여러해를 두고 호남 영남과 관북을 두루 돌아 쪼각 쪼각난 글을 찾아모아 일부의 완전한 글을 이루어 이 일에 재력을 모아 인쇄에 올린것은 종인의 힘이요 지모를 짜내 공을 이룬것은 불초의 사업이다.

나의 미력함과 고루함이 어찌 인심을 포섭하여 대사를 이루었다 할까마는 그 뜻은 조상을 높이고 겨레를 화목하게 함에있다.

그러므로 이족보를 보는이 또한 효제의 마음이 북바쳐 오른다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니 모름지기 후생들은 나의 충심을 알아 전후를 빛내고 보람차게 한다면이 족보의 효력이 어찌 적다하겠는가!

예음五十六年 辛亥六월 갑진삭초

중손통훈대부행위금부도사 응 두 정서

楊根金氏族譜序

金氏之系出新羅 敬順王後者其麗蓋不億而籍于楊根者乃其一派也其源遠 故同祖而異宗其派別故分族而各譜其勢然矣 國初有 益和君忠愍公佐命 王家受封于楊此爲吾派之始也自是 四傳而至 益

城君世襲珪組門 楣之輝映於斯盛矣 降自中葉門祚衰薄雲仍不繁顯人不作於是乎失之兵燹而譜牒或多闕略散落京鄉而宗族或作路人 若其宗派之相繼及流之旁列何從而得其詳也嗚呼以一人之身分爲兄弟兄弟之身至于功德無服疏人喜不慶憂不吊之境此蘇氏譜之所由作而觀其譜者孝悌之心可以油然而生矣今吾金氏既無譜矣則孝悌之心又何從生乎余以是病焉捲々乎程夫子所謂收宗族明譜系者蓋亦有年矣之湖之嶺至于關北窮覓諸家之片帖合成一部之完書是役也鳩財鉅梓諸宗力也出謨告功不肖業也 頌我孔陋雖不敢以管攝人心自居蓋其義則尊祖也 敦宗也然則雖謂之觀此譜者孝悌之心亦可油然而生倘非過語也耶嗟爾後生 體我苦心光前裕後以大吾家聲則茲譜之效夫豈曰淺々也哉

乾隆五十六年辛亥六月甲辰朔朝

宗孫通訓大夫義禁府都事應斗感泣敬序

慶州金氏世譜乙未版의 머릿말

時代가 바뀌고 國情이 달라져서 民族的으로 解放하고 國家는獨立하여 自由를 부르짖고 統一을 외치는 우리中國文化에의 陶醉로 雅化한다고해서 우리 말을 없애버리고 日帝의 强壓 아래 皇民되기爲하여 創氏하는 그릇된 精神을 淨化하고 屈辱의場面을 되풀이하지않고져 時代的인 認識의 促進과 民族精神의 昂揚을 强調하는 오늘 紀綱이 弛緩하고 人心이 頹圯하여 末世紀的 氣風이 彌蔓하는 이때에 있어서 修譜事業은 時代의 要請에 順應하는 運動의 하나인가 하노라

무릇 姓은 系統을 表示하고 氏는 分派를 나타내는 것이요 修譜는 世系를 바르게하고 派別

과 行列을 밝히서 위로 先祖의 偉烈과 鴻業을 敬仰하고 아래로 宗族의 敦睦을 期하는 것이니 이것이 崇祖觀念을 涵養하는 培養基요 睦族精神을 昂揚하는 이치가 되며 後孫을 善導하는 羅針盤이요 國家를 爲하고 民族을 사랑하는 推進機가 되는 것이니라

修譜의 精神이 이렇듯 거룩하고 目的하는 바가 이렇게 큰 지라 따라서 思想善導와 社會改善에 이바지하는바 또한 많을것을 믿는바이다

때는 西紀一九五五年 太歲는 乙未요 절은 서리 내리고 풀 마른 첫겨울 見露履霜에 感時追遠은 東方의 孝道라

敬順王 할아버님의 옛일이 새삼스러히 생각난다

國勢가 累卵과 같고 民生은 塗炭에 빠지므로 明哲하고 仁慈하옵신 敬順王께옵서 時局의 趨勢를 洞察하시고 平和的으로 民族의 幸福을 꾀하시려는 거룩하신 理念을 품으시고 開京(송도)行을 英斷하신 것이 바로 西紀九三五年 乙未冬十月이니 今年이 꼭 十七週甲이라 南北으로 갈리어 塗炭에서 헤메이는 오늘날의 우리로서 그때의 情勢와 님의 心境을 推想함에 더욱 追慕의 感懷를 禁할 수가 없는바이요 이 해에 이譜課의 이룩함도 千載의 奇緣인가 생각하는바이다

回顧컨데 우리 舊世譜는 過去 甲子年 春季(年號未詳)에 往代先祖가 最初로 創刊이 되었고 其後 歷史의 進展과 世代의 經過에 따라 修譜의 緊要性을 느껴 西紀一九一一年(辛亥)에 大同譜格인 辛亥譜가 宗成되어 後孫에게 繼承하였으나 亦是 時代의 進展과 宗族의 繁榮에 따라 現代의 要請되는 大衆의 世譜를 實現하기爲하여 舊譜創刊後 四十六年만인 西紀一九五二年(壬

辰)五月十一日 西歸浦에서 濟州道慶州金氏都門會를 創立하는 同時에 族譜修譜委員會를 結成하고 族譜修補할 것을 決議하여 收單과 集金에 看手하니 때는 四三事件의 慘狀과 六二五動亂의 直後인 만큼 本事業推進에 一大障礙를 느꼈으나 然而 萬般의 隘路와 難關을 克服하면서 一般의 回覽容易便宜하게 大革新的인 한글을 並用하여 辛亥譜二倍以上에 達하는 一千二百頁의 編輯을 完成하였다

比修譜에 際하여 宗親特志의 物心兩面으로 熱烈한 援助와 不徹晝夜犧牲的으로 全力을 다한 任員諸位에게 對하여는 滿腔의 敬意를 表하는 同時에 勿慮四年이란 長期間에 걸친 遲延된 點에 對하여는 宗氏一般에게 對하여 主管側으로서 深甚한 謝過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慶州金氏의 傳統과 宗族間의 敦睦特有性을 後孫에 示範하려면 將次後孫으로서는 四五十年間에 一回式은 修譜를 期必 斷行하여야 할 것이다

西紀一九五五年 乙未十月 日

慶州金氏 都門 會

을미보(乙未譜)의 인쇄(印刷)를 마치고

乙未譜의 印刷를 마치고

乙未譜印刷의 끝맺음에 臨하여 밝히두어야 할 것은

一、 本世譜는 辛亥譜의 續刊이라 그 体制와 範圍 및 方式이 다를지라도 辛亥譜를 主体로 삼아서 編輯하였음

辛亥譜序에 舊譜序가 記載하였으므로 辛亥譜以前の 舊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在濟慶金

世譜의 創刊年代와 其他 諸般關係를 參考하려고 하였으나 舊譜를 入手할 길이 없었으며 長田 宗家潤富氏宅에 그 祖父까지 記載하고 印板으로 된 單本の 譜牒이 있으나 範圍와 規模로 觀察 하건대 長田宗家宅을 中心으로 한 家乘의 存在이며 또 序文이 없으므로 舊譜序云々の 關係는 밝힐수 없으나 在濟慶金의 大同譜의 性格을 가진 것은 辛亥譜가 最初의 것으로 생각함

二、本世譜의 印刷는 昨乙未 五月三十日附로 濟州新聞社와의 사이에 出版契約을 締結하고 十一月末까지에는 完成할 豫定이었더니 好事多魔라 用紙購入이 如意치 못하여 九月五日까지 印刷에 着手하고 戊景宗氏가 晝夜로 督勵하였으나 活字事情이 豫期한바와 달라서 갈수록 層 岩이요 絶壁이라 遲延에 遲延을 거듭하게 되므로 去六月十七日 濟州新報의 契約을 解消하고 濟州印刷所에 委囑하여 走馬에 加鞭格으로 全馬力을 動員하여 오늘의 刊行을 보게 되었음

三、本世譜를 乙未譜라고 한것은 編輯에 着手한 甲午와 印刷를 마친 丙申의 中間인 乙未에 編輯을 마치고 印刷에 着手하였으며 敬順王이 遜國하옵신 乙未의 十七週甲에 該當한 乙未 年임으로 더욱 記念하는 뜻에서이다

西紀一九五六年十一月 日

族譜修譜委員會編輯部

一世

金閔智

김알지

始祖大王

시조대왕 (추존)

大輔公 (대보공)

현 국부총리에 해 당함

誕 서기六五年三月

신라 제四대 석탈

해왕 (昔脫解王) 九年

본보 (本譜) 추편참조

二世

子勢漢

세한

일휘 熱漢 (열한)

誕미상

經구보 (舊譜) 에는 벼

슬이 이찬 (伊飡) 이

다 신라 제三〇대 문

무왕의 비문 (碑文)

에는 공을 성한왕

(星漢王) 으로 기재

되어있으니 대왕으

로 추존되었음을 알

수있다

崩미상

陵미상

妃미상

三世

子阿道

아도

誕미상

經신라 제五대 파사

왕 (婆沙王) 三二年辛

亥 서기一一一年에 벼

슬이 파진찬 (波珍

飡) 현 수산청장이

였고 제七대 일성

왕 (逸聖王) 一五年에

는 갈문왕 (葛文王)

으로 추존되었다

崩미상

陵실전

妃미상

四世

子首留

수류

일휘 壽留 (수류)

生미상

經신라 제六대 지마

왕 (祇摩王) 一五年丙

寅 서기一二六년에

각간 (角干) 현국무

총리에 취임

卒미상

墓실전

配미상

五世

子郁甫

옥보

일휘 郁部 (옥부)

生미상

經신라 제七대 일성

왕 一五年에 각간

(角干) 에 취임

卒미상

墓실전

配미상

子仇道

始祖 六世

郁甫

仇道

구도

일휘 俱道 (구도)

經갈문왕 (葛文王) 推존

신라 제八대 아달

라왕 (阿達羅王) 一九

年一月 서기一七二

년에 파진찬 (波珍

飡) 제九대 별휴왕

(伐休王) 二年 (一八

七世

子味鄒王

미추왕

일휘 味炤王 (미소

왕)

본보왕사적편참조

女希禮夫人

女內禮夫人

奈勿王의妃

女內留夫人

實聖王의妃

八世

九世

一〇世